

國立公園의 標識施設 擴充

申 鉉 敏
〈會社員〉

國立公園指定 趣旨와 目的의 하나로 學術研究의 對象地, 敎化와 敎育의 道場으로서 利用되어야 한다는 名文을 볼 수가 있었다.

맹목적인 登山, 山을 오르내리는 다리의 筋肉運動보다는 精神 修養과 心身의 단련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感銘을 받은바 있었으며 그 後 登山의 機會가 있을 때마다 오르내리고 끊어먹고 마시는 식의 登山을 止揚하고 배움의 姿勢로 임해야 되겠다는 覺悟를 했었다.

國土自然을 保存하고 學術研究와 休養, 敎育과 敎化, 國民 情緒生活의 함양과 國民保健의 增進, 우리함께 잘가꾸고 保護·保存하여 後孫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자는 國立公園이 갖는 使命과 우리 自身의 責任등을 견주어 볼 때 너무나 막중하며 必然코 지켜지고 이루어져야할 國家的 事業임에는 틀림이 없다.

都市生活의 답답함과 소음속에서 自然 아니 國立公園을 찾아 自然과 生活하고 自然을 배우고나 自身을 키워주고 뒷받쳐줄 心性을 기르면 이보다 더 크고 알찬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지난 7월에 智異山에서 열렸던 「國立公園大會」 등은 國立公園運動을 推進하는데 바람직한 行事로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며 每年 차질없이 推進하여 汎國民的 行事가 되게 하여 줄것을 부탁하면서 한가지 의문과 바라고 싶은 것은 國立公園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잘 가꾸어지고 利用者에게 便宜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만 실망과 아쉬움이 앞선다.

그 理由는 現在의 國立公園이 指定되기 前과 比較해 볼때 어떤 面에서는 利用과 探訪에 不便要素만 늘어났을뿐 구태의연한 그대로 인것만 같고 달라 진것이 있다면 管理事務所의 登場과 展望臺의 設置, 集團施設地域이라는 곳에 宿泊施設이 몇개 들어서고 國立公園區域임을 알리는

표식이 있는 程度이고 한가지를 더 추가하면 登山路의 部分的인 整備가 그 全部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國立公園의 現在 實態로서 國立公園의 指定 趣旨와 目的이 單純한 利用規制, 料金徵收등만이 아닌 眞實된 保護·保存과 國民의 利用增進이라면 利用者의 無知에서 오는 自然의 破壞나 行樂단이라도 깨우쳐 스스로 지키게하고 國立公園이 지닌 價値를 올바르게 認識케 할 수 있는 最少限의 施設이라도 갖추어 주었으면 한다.

一般 山岳景觀地와의 比較를 自然의 秀麗함이나 管理事務所의 有無에 건줄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利用案內施設物의 設置가 必要한 것이 아닌지?

소견으로는 많은 費用과 번잡한 施設이 아니라도 充分한 效果를 거둘 수 있는 표찰 形式의 簡單한 施設로도 利用者가 느끼고 깨달아, 알고 지킬 수 있는 效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點을 勸案하여 다음 建議 事項을 提言하니 再三檢討하여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면 積極的인 推進이 있기를 바란다.

1. 主要 登山路 進入 地點에 公園의 現況과 自然資源 및 景觀, 稀貴 動·植物등의 紹介 案內板 設置
2. 登山路 周邊 植物등에 대한 紹介 표찰의 부착 또는 設置
3. 利用에 대한 案內板을 要素別로 設置하여 경각심을 환기시킨다.
4. 地域의 特色과 위험요소들을 소개하여 事故를 미연에 방지한다.
5. 用途地域設定의 意義를 案內揭示하여 그 設定效果와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誘導한다.